

## 학교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안 봉 순\*\*

학령기는 우리의 일생 중에서 신체나 정서발달이 가장 신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특히 구강건강의 측면에서 볼때 초·중학교 학생시절에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형성된 구강 보건에 대한 태도가 장차 일생을 통하여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데 기초가 되며 특히 이 시기의 구강 건강은 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한 사업으로서 교육 및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구강 보건 지식과 관리 능력을 습득케 하여 좋은 구강 상태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근래에 이르러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전신 신체 발달상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구강 상태는 오히려 더욱 나빠져 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12세 학생의 우식 경험 영구치의 수를 보면 1972년 0.6개, 1979년 2.5개, 1986년 2.8개, 1990년 3.1개로 즉 해가 갈수록 우식경험 영구치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강병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잇솔질을 하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학 학생들중 19.4%는 잇솔질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1일 1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학생도 대부분 아침 식사전 1회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고 하겠다.

학교구강 보건의 목적은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학생의 구강 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므로써 포괄적 건강 기틀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건 교육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보건 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치과 전문 인력의 개입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담임교사나 양호교사 및 학교 책임자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영역이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양호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사들의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구강보건 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포괄적인 구강 진료를 정기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구강보건 진료비를 최소로 줄이면서도 구강보건 수준을 최고도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현행 학교 구강보건 사업 실태는 어떠한가?
- 2) 학교 구강보건 사업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바람직한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 연북중학교 양호교사

본 연구는 서울시내 22개구 소재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와 학교에 위촉되어있는 학교치과의사중, 양호교사는 학교명단 중에서 무작위추출한 101명, 학교치과의사는 구별 위촉명단 중에서 무작위 추출한 84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내용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성한 도구로서 양호교사 대상 총 27문항 학교치과의사 대상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이다. 도구를 작성하기에 앞서 학교구강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11인으로 부터 직접면담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조사 하였고 본 설문지가 실제조사에서 적절한 도구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양호교사 5인, 학교 치과의사 5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반응을 받은 10개의 설문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 분석하여 다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연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일반적 특성과 보건사업 각 영역간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으며 두집단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비교는  $\chi^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구강보건교육에 관하여

양호교사의 경우 초·중학교에서 63.4%가 현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실시자는 양호교사 자신이 63.1%이었다. 교육시간 선택은 정규보건교육 시간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방법은 양호실에 아파서 찾아온 학생을 개별상담 교육하는 것이 제일 많은 21.5%를 차지하고 있어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경우, 41.0%가 구강보건교육 실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그중 80.5%가 정기 구강검사시 병행하여 교육한다고 답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었다.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활성화방안으로, 양호교사는 바람직한 구강보건교육자로는 보수교육을 받은 양호교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37.4%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정규 보건교육시간(48.2%)에 실시하기를 원했다. 구강보건교육 방법으로는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법인 반별 강의, 비디오 관람, 실천교육을 병행하는 방법(34.1%)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반별 비디오관람과 강의식교육을 병행(20.9%)한다든가, 반별강의와 실천교육병행(19.7%)하는 방법등 반별로 실시하는 방법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즉 양호교사들은 양호교사가 정규 보건 시간에 반별로 실천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다. 치과의사들은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구강보건교육자로 양호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은후 실시(31.5%)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답했으며, 교육방법은 반별로 강의도 하고 구강보건과 관련된 비디오도 관람하며 실천교육도 병행하는 방법(38.3%)이 가장 바람직하고, 반별 비디오 관람과 강의식교육 병행(20.7%)이나 반별강의, 실천교육병행(18.5%)등 반별 교육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두 그룹간의 비교에서, 바람직한 구강보건 교육 실시자는 양호교사가 보수교육 후 실시하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 하여 양호교사(37.4%)와 치과의사(31.5%)가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며 구강보건교육 방법에 관하여도 반별로 강의도하고 비디오관람도 하며 실천교육까지 병행하는 방법에 가장 높은 %를 나타내어(양호교사 34.1% : 치과의사 38.3%)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기구강 검사에 관하여

양호교사의 경우 1994년 현재 98.0%의 초·중학교에서 정기구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는 위촉학교 치과의사(42.7%)나 지역사회 치과의사회 검사팀(29.2%)이 실시하였고, 검사방법으로는 위촉학교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의 협조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34.3%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에서 검사팀을 구성하여 학교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방법을(25.3%) 두번째로 많이 하고 있었다. 구강 검사 후 결과 처리는 46.0%가 통계와 보고 그리고 이상자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치료확인서까지 받는 경우는 19.0%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경우 1994년도 정기 구강검사에 78.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 검사시 사용한 도구로는 치경(28.4%)이나 탐침(23.3%)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구강검사를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조사에서는 양호교사의 32.5%가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지역사회 치과의사회 검사팀이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4.3%가 위촉학교 치과의사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다. 즉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에서 검사팀을 구성하여 학교를 순회하며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택하였는데 이 방안은 정기 구강검사를 학교치과의사 1인이 담당하기에는 무리이고 지역사회 치과의사회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속해있어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의사들은 정기구강검사 활성화방안으로 지역사회 치과의사회 검사팀이 검사(26.4%)하되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개별검사 후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26.3%)이나, 지정된 의원에 가서 개별검사 후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16.6%)에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었다. 즉, 학교에서 하루에 전교생을 검사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을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두 그룹간의 비교에서, 바람직한 구강 검사자는 양호교사(189점, 32.5%)나 치과의사(129점, 26.4%) 모두 지역사회 치과의사회 검사팀이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구강 검사 개선 방안에 관하여는 양호교사와 치과의사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양호교사들은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에서 검사팀을 구성하여 학교를 순회하며 검사하는 방법에 142점(24.1%)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치과의사들은 새로운 방안인 원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검사한 후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에 130점(26.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었다.

### 3)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관하여

1994년도에 국민학교에 5%만이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29.8%가 시설 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 하였다. 앞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대도시의 상수도 불소화 사업으로 대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37.7%로 가장 많았으나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 1회 0.2% 불소용액으로 1학년과 4학년만 실시하는 방법에 22.7%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에게도 효율적이며 현시설에서도 가장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는 즉 사업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이라고 생각되나 지속적인 학교 상하수도 시설의 보완, 확충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4) 학교 치과의사에 관하여

양호교사의 경우, 초·중학교중 99.0%가 학교치과의사를 위촉하고 있었으며 위촉된 학교치과의사들중 41.8%가 정기구강 검사에 협조하고 33.5%가 응급환자 처치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형식적인 위촉상태라고 답한 학교도 22.2%나 되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정기구강 검사에 협조하고(45.5%) 응급환자를 처치(32.2%)하는등 양호교사와 거의 같은 응답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형식적인 위촉 관계(14.1%)라고 답한 경우도 역시 많아 학교치과의사를 학교보건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 요망된다.

양호교사들은 바람직한 학교치과의사의 임무로 36.5%가 정기구강검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급환자 처치 및 자문(35.8%)등 현재 까지와 같은 임무를 계속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들은 학교치과의사의 중요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기구강 검사에 협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29.3%가 답하였으며 그의 응급환자 처치 및 자문(24.6%), 직접구강보건 교육(21.9%)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그룹간의 비교 결과 바람직한 학교치과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호교사(218점, 36.5%)와 치과의사(143점, 29.3%) 모두 정기 구강검사에 협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구강 보건 교육

구강 보건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중요함을 앞의 필요성에도 언급하였지만 구강보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다른 구강보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보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실천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평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호교사는 구강보건에 관한 연간계획을 작성할때 전교생을 모두 직접 강의, 실천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저학년에서는 직접강의 실천교육을, 고학년은 비디오관람 등으로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정기구강 검사

정기구강검사 활성화방안으로 현재까지 실시하던 방법에서 일시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좋은 효과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본 연구자는 시범적으로 일개 구를 선정,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국민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위촉학교 치과의사에게나 인근 지정 치과의원에서 개별적으로 검사한 후(이때의 검사 비용은 의료보험수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그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시행한 후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차츰 사업 방향을 확대발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저가로 구강 검사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치과병원은 아파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도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우선 신입생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의 계속적 관리는 더욱 용이하게 때문이다. 그리고 나면 학교에서도 일시에 검사하는 학생수가 조금이라도 줄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좀 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은 1회 소요시간 10분 이내, 적어도 20분 이내에는 실시 완료 되어야 수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생 안전 사고의 위험도 없어야만 한다. 그러나 1개의 수도 꼭지로 수십명이 사용해야 하는 현 학교시설에서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행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의 위험마저도 있으므로 우선 상하수도 시설을 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야하고 새로 건축하는 학교시설에는 이런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4) 학교치과의사

양호교사들은 구강 보건의 중요 인력으로, 위촉된 학교치과의사를 학교구강 보건 사업에 적극 참여 시키고 위촉된 학교치과의사들은 차세대의 국가의 근역이 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으로 학교치과의사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학교의사의 직무속에 포함된 막연한 임무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일반의사와 다른 치과의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명시해 놓는다면 협조를 부탁하는 양호교사에게나 협조를 부탁받는 치과의사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 1) 현행 학교 구강보건사업 현황에 관하여 서울시 뿐만 아닌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제언한다.
- 2) 앞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실시해 보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언한다. ▮